

# Daiv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13,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세션 13, 가나안 족속의 멸망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서 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관한 까다롭고 까다로운 질문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수아서 주석을 쓸 때 일반적으로 묻는 첫 번째 질문 중 하나인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를 받습니다. 하나는, 그 긴 하루와 태양이 가만히 서 있는 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대량 학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일정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겪는 데 훨씬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명하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특정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신명기 7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것의 첫 번째 진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거기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앞에서 많은 민족을 쫓아내실 때에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여섯 민족, 즉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7개입니다.

일곱 나라가 당신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다른 맥락에서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 네가 그들을 이기거든 너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로 삼지 말지니라 왜? 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나를 따르지 않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이니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오르리라. 그는 당신을 빨리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들의 기둥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그들의 조각한 형상들을 불로 태워버리라

바로 거기에서 문제에 대한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논쟁의 맥락 중 하나를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술은 이 사람들을 그냥 쓸어버리고, 그들을 완전한 파멸에 바치려는 실제적인 진술입니다. 2절, 그들과 아무 언약도 세우지 말며 통혼하지 말라. 신명기 20장에도 비슷한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니 신명기 20장 16절부터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문단 중간으로 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성읍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읍을 뜻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 두지 마시고 오직 그들을 온전히 멸절시키소서. 그런 종류의 반향은 신명기 7장과 같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으니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그들 자신의 예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6장을 펴서 그들이 여리고로 가서 이 성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1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다시 한 단락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 멸망시키리라 라합만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완전한 멸망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자,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것이 이스라엘 신이나 이스라엘 종교의 가증스러운 본성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변명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는 그러한 관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하나님을 거부해야 하며, 그것은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거나 구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것이 구약의 하위기독교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구약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노하셨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예수께서도 화를 내셨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셨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냈고, 복음서 중 하나에서는 그가 가서 채찍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발작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서 자신의 폭력 행위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성서보다 신약성서에서 지옥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법은 거짓된 이분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구약에서도 물론이고 이미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저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쫓아내라고 명하셨을 때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거나 몰아내시거나,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가난한 가나안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도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을 스스로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이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은 그가 어떻게 천 개의 언덕에서 소떼를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소유인 땅에서 쫓아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이 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그곳에 잠시 머물게 하리라.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여 내 백성을 끌어들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 찾기를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당할 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마다 주님은 외국의 압제자들을 그들에게 데려오셔서 그들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큰 예는 몇 년 후,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을 앗수르에게 포로로 잡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에 관해 듣습니다.

나중에 유다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정확하게 다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편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원한다면 자기에게 오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도 라합은 그렇게 한 사람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 요점은 이 땅은 가나안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여호와와 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점은, 우리는 이미 신명기 구절에서 이것에 대한 힌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 때문에 완전한 멸망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차원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벌과 죽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주변 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럼, 그 중 일부를 이야기해 봅시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문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위대한 구절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12장, 15장, 17장.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부분의 중앙으로 바로 뛰어 들 것입니다.

그가 꿈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주시며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400년 동안 다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3절 부근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를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바로를 멸망시키십니다. 그 때에도 기억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때에 그 재물을 그들에게 싣고 이르되 여기서 나가라 우리 물건을 가져가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런 종류의 것이 이것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후손은 한동안 애굽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6절 끝부분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였느니라.

아모리인이라는 용어는 성경 밖에서도 여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동의어입니다. 특정 종족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넘치게 되는 때가 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벌하기 위해 나중에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처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간주됩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보여주는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매우 극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돌아서면 그 쪽으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나열한다는 점에서 끔찍한 구절입니다.

그럼 먼저 레위기 18장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다. 3절,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 것이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당신이 온 곳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그 행위를 좇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디서 왔던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갈 곳에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법령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하위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은 내 율례를 따르라 입니다. 그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이거나 가나안 사람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오직 내 율례를 따르라. 너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4절,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 등을 지키라.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의 전체 목록이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섹션을 다 읽고 나면 항상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친상간, 간음, 수간, 동성애 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4절은 이에 대한 일종의 논평입니다. 24절에서는 이런 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족속은 다 더러워졌음이라.

그러므로 요점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즉 가나안 족속의 집단이 6절부터 23절에 언급된 일들을 행함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단지 일반화된 죄가 아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나안 족속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쫓아내려는 이유이다. 당신은 그것을 위한 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행을 채택하지 마십시오.

그 땅이 더러워지므로 내가 그 죄악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오직 너희는 나의 규례와 계명 등을 지키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전에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행하지 말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목록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특정한 종류의 타락을 나열한 우울한 목록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 이 부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시작하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언제 들어갈 것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땅. 그가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나의 공의로 말미암아 말하지 말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 나라들의 사악함 때문입니다.

5절,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네 의로움이나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임이니라. 우리가 만들고 있는 두 번째 요점, 첫 번째 요점은 모든 땅은 특정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 때문인데,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극적으로 가증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꽤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밖의 증거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근동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으며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은 땅이 가나안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산당에서 사용하던 유물과 사람이 섬기는 작은 우상과 우상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와 다른 사람들의 금속 조각상을 금속으로 그린 그림도 있는데, 흥미롭게도 아세라는 항상 매우 성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세라의 형상들은 그녀의 모든 올바른 곡선 등으로 인해 불쾌합니다. 신성한 매춘 또는 제의적 매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관행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강의에서 그가 히브리어로 매춘부를 뜻하는 몇 가지 다른 단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중 하나는 라합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는 매춘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인 소나입니다.

라합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문화, 대부분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매춘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언급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케다샤(kedashah)인데 이것은 보통 신성한 매춘부, 제의적 매춘부 또는 사원 매춘부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 단어가 카도쉬(kadosh)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고, 카도쉬는 거룩하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활 등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관해 레위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의 왜곡은 가나안에서, 때로는 슬프게도 이스라엘에서 채택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신전 창녀, 제사 창녀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여성형인 것도 있었고, 남성형인 케도쉬도 있었는데, 이는 제사 남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여기서의 개념은 바알이나 아세라의 성소에서 사람들이 곡식 제물이나 동물 희생, 또는 바알에게 바칠 모든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신전에 참석하는 제사장들과 여사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다른 문맥에서 바알이 폭풍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땅과 작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물을 가지고 성소에 올 수 있으며, 그러면 너희는 바알이나 아세라의 신당과 연합한 창녀나 제사장이나 여사제와 함께 있는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매춘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산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여러분은 바알이 여러분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와서 야훼를 숭배하라고 말하는 기발한 상상을 합니다. 그분이 진짜 신이시니 가나안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농담이군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이것은 큰 왜곡이고 그것의 성적인 면에서 우리는 가나안의 고고학적 유적에서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것은 자녀 희생을 크게 실천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인이나 가나안인은 아니었지만 결국 가나안인은 나중에 오늘날의 레바논에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며 지중해를 건너 항해하는 배를 가졌고 가나안인은 결국 북아프리카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르타고에 큰 기지를 세웠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도시였습니다. 카르타고에서는 납골당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방이 적어도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곳 구석에 유아 두개골이 있고 분명히 그곳은 유아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세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포악함,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 중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불쌍한 가나안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여기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이나 다른 누구를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죄를 짓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사람들 자신도 물론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하신 세 번째 이유는 그들 자신을 위한 것, 즉 그들의 예배의 순수함을 위함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람(hara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H는 목을 가다듬는 것처럼 발음됩니다. 하람은 완전한 파괴 또는 전멸을 의미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를 금지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함께 나오는 동사는 명사이고 이것과 어울리는 동사는 하람입니다. 이것은 멸망에 바치다, 금지령 아래 두다, 그런 의미로 무언가를 의미하며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여러 번 발견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미 살펴본 많은 구절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주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리고에서 7일 동안 여리고를 둘러싸고 돌았던 의식의 전체 개념을 기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일종의 예배적 맥락에 두고 있으며, 마치 그 도시 자체가 이스라엘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멸에 바쳐졌고 그 물건은 공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제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관행이 거의 전적으로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 같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는 주변 문화권의 많은 언어, 즉 우리가 셈어라고 부르는 더 큰 계열의 언어와 유사하며 다른 언어에서 발견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있지만 하람이라는 단어는 셈어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만 빼고요.

모압석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비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모압의 왕은 메사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아합과 그의 아버지 시대의 왕이었는데, 메사는 자기 원수 중 하나를 멸망에 바친 일을 말합니다. 모압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비슷하고

가까운 이웃이었지만, 그 이상은 구약성서 특유의 관습인 것 같고, 좋게든 나쁘든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70~75명의 작은 무리로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애굽에서는 수만 명까지 성장했고, 출애굽이 시작되면 그 이상 국가가 되지만 그들 스스로는 국가로서의 자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가야 할 나라 등으로 정체화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매우 취약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국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막의 물, 만나, 메추라기 등을 공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흔들리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얻은 것을 동화시키기에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땅을 정결케 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시작할 곳에 정착하게 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라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관습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신명기에서 읽은 몇몇 구절 뒤에 있습니다. 민족 국가. 왜? 그래야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충실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온전함을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무시했을 때 그들은 결과를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간 7장에서 그들은 여리고에서 바친 물건 중 일부를 가져가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후의 사사기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아직 앞으로 나올 장들인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6~8번 정도, 우리는 그런 것과 그런 지파들이 자기 땅에 정착하여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들의 종교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 백성을 진멸하거나 완전히 몰아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적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은 사사기에 이르면 폭발하는 작은 시한폭탄입니다. 사사기는 이 지파, 저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사기의 궤적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파산의 하향 궤적이며, 그 중 일부는 이스라엘이 그 온전함을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그들은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큰 이유는 아니지만 네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일텐데, 창세기 12장에서 살펴본 언약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축복하리라 하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9장과 11장에서 두 장의 시작 부분에 침략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오는 가나안 왕들의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반응은 사람들이 너를 반대하면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것은 확실히 9장과 11장의 연합에 적용됩니다.

이제 분명히 그 전에 여리고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를 반대하는 것은 없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생각은 거기에

있습니다. 라합은 실제로 9장의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의 장자권이 아닙니다. 둘째, 가나안 족속의 죄는 그들 자신의 멸망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넷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점은 이것이 명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관점이나 신약 이후의 관점, 21세기의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모두 톡톡히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의 차이, 구약을 통한 시간의 진행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구약의 역사는 1,500년, 1,600년에 달하는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전투가 있고 많은 갈등이 있지만 적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명령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만날 때마다 칼로 쳐부수라고 자유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구약성서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입니다. 구약성서는 전투와 전쟁으로 가득 찬 성서이며, 그들은 항상 적들을 죽이는 등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는 명령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특정 시간에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적들이나 외국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기본 방식은 아브라함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낯선 사람, 외국인, 외국인, 게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외국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칼로 그들을 쳐부수고 맞서 싸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이방인, 열방이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이 때와 이곳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여호수아를 포함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들에는 항상 이런 일들 뒤에는 일종의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들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서 들었습니다. 나는 아시리아를 벌할 것이다. 모압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벌을 내리리라.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물러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자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 불순종하면 저주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등등. 심지어 여기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론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신명기에서 무조건적인 것처럼 들리는 몇몇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한 사람도 살려 두지 마십시오. 매우 절대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합이 살아남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다른 각도에서 기드온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9장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게 될 기드온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긍정적인 각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견해는 요나와 니스웨의 이야기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니스웨는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리라 말씀하신 큰 성이었습니다. 매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진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면 니스웨는 멸망될 것이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여리고 주민들, 더 넓게 말하면 가나안의 다른 도시들이 라합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거나, 아니면 몇 년 후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면 말이죠. , 그들은 그런 파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한 행복한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을 멸하라는 겉보기에 가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있었다면 그 명령은 철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대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이슬람 지하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겹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하드가 성경에 나오는 하람과 비슷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유사해 보이는 피상적인 요소가 있지만 심오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이 여섯 가지 사항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세션 13, 가나안 족속의 멸망입니다.